투데이 칼럼

독일의 정치적 안정 비결

정 복 규

논설위원

2차 대전 이후 독일 정부 수립 초기에 아데나워 초대 총리와 에르하르트 경제장관은 정치·경제 발전의 기틀을 만들었다. 독일은 세계대전 이후 앵글로 아메리칸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속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가장 안정을 유지하고, 통일까지 달성했다.

독일의 정치적 안정에는 의원내각제를 바탕으로 한 타협이 비결로 꼽힌다. 1949년 서독 정부가 탄생할 때 민주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가 이뤄질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졌다.

기본법(헌법)을 제정하면서 승전국과 독일 국민 모두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 때의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히틀러 같은 일당 독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거법을 어느 당도 혼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전체 의석을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절반씩 나누어서, 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무조건 의석을 배분한다.

각 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이 주어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얻으면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든다. 반대로 지역구 의석이 모자라면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난다.

독일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된 것은 내각제를 하면서 한 정당이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여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데나워 초대 총리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는 기독교민주연합(CDU)을 만들면서 옳은 방향을 제시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한 것이 히틀러만의 죄가 아니라 독일 국민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반면 사민당(SPD)은 아데나워를 미국의 앞잡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독일 좌파인 사민당은 우파인 기민련의 '사회적 시장경제' 정책을 채택했다.

기민련은 사민당의 〈동유럽 공산국가와의 화해 정책〉 이른바 동방정책을 수용했다.

독일은 정치·경제적 안정을 이룬 비결이 있다. 의원내각제에 기반한 연정을 통해 좌우 협치, 시장과 정부 역할에 조화를 추구한 사회적 시장경제, 노동자 경영참여를 통한 노사협력이 있었다.

아데나워는 민주주의, 사회적 보수, 유럽 통합이라는 세 가지를 모토로 했다. 그는 독일 정치의 연정 전통도 만들었다.

아데나워는 리버럴을 표방하는 기민련과 자유민주당(FDP) 간의 연정으로 출발했다.

그는 1957년 총선에서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절대 다수 의석을 얻었으나 계속 연정을 유지했다. 이후 계속 연정을 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가 자리 잡게 됐다.

우파인 기민련과 좌파인 사회당 간의 대연정도 4차례나 이뤄졌다. 기민련의 키징어 총리가 1967년 처음으로 사민당과 대연정을 이뤘다. 메르켈 총리도 3차례나 대연정을 했다.

좌우를 넘어 여러 정당이 모여서 연정을 하면서 〈현재의 사민당(빨강), 자민당(노랑), 녹색당(초록)의 연정을 의미〉하는 '신호등 연정'이라는 용어까지 생겼다.

독일은 사민당 출신인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기민련 출신의 콜 총리가 계승했다. 브란트 총리는 1972년 동독과 동서독 상호 승인과 유엔 동시 가입을 담은 기본조약을 체결했다.

이때 기민련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결국 브란트 총리를 불신임하면서 1972년 조기총선을 치렀는데, 독일 국민은 사민당을 지지했다. 기민련은 그 뒤로는 국민 뜻에 따라 동방정책에 일절 반대하지 않았다.

1982년 사민당과 자민당의 연정이 깨지고, 콜 총리가 기민련과 자민당의 연정을 시작하면서 동방정책을 계승했다. 이것이 1990년 독일 통일로 이어졌다.

사민당의 슈뢰더 총리는 2003년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담은 '어젠다 2010'을 시행했다. 2005년 총선에서 기민련의 메르켈 총리가 승리한 뒤 사민당과 대연정을 하면서 이를 모두 수용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독일 총리는 9명이다. 정치가 안정되니까 아데나워 14년, 콜 16년, 메르켈 16년 등 장기집권이 가능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인도 유학생 죽음에 항의 행진하는 시애틀 사람들

지난 1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시위대가 '자나비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시위대는 지난 1월 23세 여성 자나비 칸둘라를 경찰차로 들이받은 후 농담을 나누는 경찰의 보디캠이 공개되자 이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인도 유학생 칸둘라는 1월 시애틀의 교차로에서 약물 과다복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뒤 숨졌다.

홍수 피해 현장에 흩어진 장난감

지난 14일(현지시각) 리비아 데르나의 홍수로 파손된 집 근처에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다. 리비아 적신월사는 수색 작업이 계속되면서 데르나 홍수 사망자 수가 약 1만3000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사 설

어느 수필가의 '요양원 블루스'

최근 전주에서 활동하는 최화경 수필가의 글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의 수필 '요양원 블루스' 앞부분은 다음과 같다.

'요양원에서 20년을 누워계시던 동생의 시어머니가 세상을 떴다. 향년 97세였다. 향년이란 말에 울컥했다. 향년이란 살아서 누린 나이를 말하는 건데, 과연 살아서 누린 것이 있는 세월이기나 했을까. 77세에 입원해 그길로 20년을 요양원에서 산 셈이다. 97세라니, 살아있되 살아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 막내아들과 막내딸이 2~3년 사이에 암으로 세상을 떴다. 한동안 가족들은 말을 못했다. 노모는 속도 모르고 막내는 왜 안 오느냐고 섭섭해했다.'

수도 없이 늘어나는 요양병원에는 여전히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생명줄이 늘고 있다. 어눌해진 목소리와 둔한 몸짓,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호흡만 겨우 유지하는 억지 장수가 많다.

이 숫자까지 평균 수명에 포함시킨 백세시대는 재앙이라고 말한다.

최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제정된 이후 6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184만179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결정 이행의 경우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 가족에 의해 진행된 것이 더 많았다. 웰다잉법에 따라 누구든 건강할 때 사전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고, 임종 단계 환자라면 담당 의사에게 연명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환자 가족의 합의와 의료진 판단으로 연명 치료 중단이 결정된다. 사전의향서의 상담과 작성?등록은 건강보험공단 일부 지사와 노인복지관 등에서 이뤄진다.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이다.

전주시민대상 오용기 원장

전주인문학연구실 오용기 원장이 '2023 전주시민대상 교육학술 부문상'을 받았다. 그는 평생 동양사상과 인문학 연구를 했다. 지금도 평생교육원과 노인복지관 등에서 고전강사로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밀알이 되고 싶다고 한다.

오 원장은 대한도덕회 전주회관 송병초 교수 문하에서 10년 동안 유불선 성리심법 수행(修行)을 지도받았다. 고전 강의, 신문 연재 등 한학 인생 45년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과 경력으로 뜻을 펼쳐왔다.

30대에 들어서면서 유불선 통합 사상을 접하면서 한문에 심취했다. 명심보감과 대학, 논어 등을 두루 섭렵한 후 전주에 유료 한문학원을 차려 후학을 길러냈다. 동양사상에 뜻을 두고 주경야독으로 10년을 공부했다.

지난 1981년에는 전주한문학원을 개설, 후학 양성에 정열을 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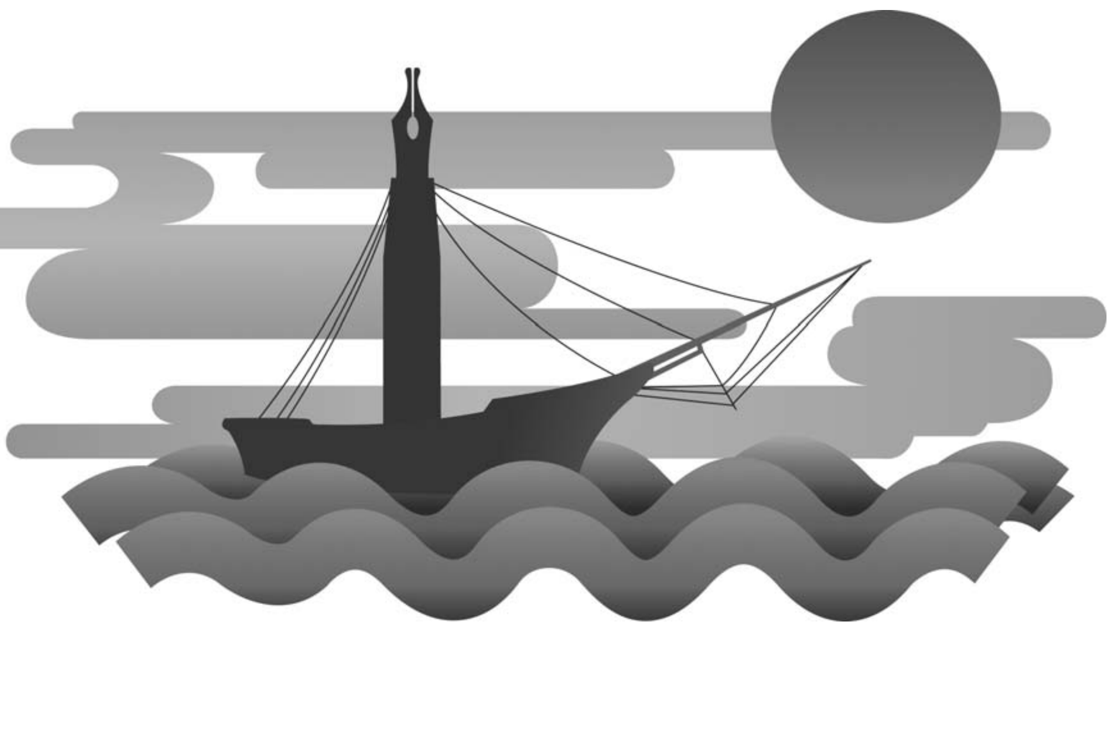
특히 무료 서당을 열어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는 김제시 금산면 원평 새마을청소년 학교 교감과 도덕회 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리고 1991년 사회봉사를 위해 전주시 전동에 무료 한문서당을 열었다. 이곳은 평소 한문을 접하기 어려웠던 직장여성과 주부, 대학생들이 많이 찾았다. 특히 그는 남다른 방식으로 강의를 하여 칭송을 받았다.

오 원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교육과 사회 적응을 위해 새마을청소년학교, 송천정보학교 등에서 한자 교사로 봉사를 하기도 했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전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전북교육문화회관 등에서 인문학 강의도 했다.

전북 고창군 대산면 연동리 출신인 오 원장은 현재 대한노령백제효도회 교육이사,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전북본부 고문, 한글세계화운동본부 특별교육보좌관 등으로 활동 중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